

[매경 CEO특강] 안상선 M로보 대표 / 한양대서 강연

열번의 작은 실패가 쌓여 성공 이뤄내

강영운 기자 입력 : 2019.04.10 17:27:36 수정 : 2019.04.10 19:27:21

"실패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합니다. 한 번의 큰 실패보다 열 번의 작은 실패로 단단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 저널리즘으로 미디어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안상선 M로보 대표는 지난달 14일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매경 CEO특강에서 "작은 실패를 자주 경험할 만큼 자주 도전하는 것이 사업의 비결"이라며 도전의 중요성을 조언했다. 원대한 포부로 크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작은 도전을 자주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 큰 실패를 경험하면 그대로 무너져버릴 수 있다"면서 "작은 도전을 통한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켜켜이 쌓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M로보는 매일경제신문 미래클럽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3년 차 스타트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오는 기업 정보를 뉴스 형태로 변환해 제공하는 솔루션을 기본으로 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을 휩쓸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안 대표는 이 같은 성공에는 '의도된 실패'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정도로 될까'라는 의문을 품고 시작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의도된 실패가 쌓이면서 결국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작은 도전들이 모여 M로보는 현재 5500건의 기사를 생산해내는 '믿을 만한' 프로그램으로 도약했다.

M로보는 10여 건의 해커톤에서도 입상에 성공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안 대표는 이 같은 성적에는 스타트업 특유의 조직 경량화가 바탕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M로보는 회의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기획해서 대회에 나간다"면서 "팀원과 회사 문화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M로보의 모든 팀원은 1990년대생이다.

안 대표는 "조직원 모두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라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표현도 잘한다"면서 "컴퓨터 공학 관련 업무가 많음에도 관련 학과 직원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직접 관련 수업을 청강하거나, 해외 대학 유튜브 강의를 수강할 정도로 열정적"이라고 했다.

팀원들의 정열에 걸맞은 문화를 조직하는 것은 안 대표의 몫이다. M로보는 평등한 조직을 표방한다. 부하 직원, 사원이라는 표현 대신 '팀원'으로 용어도 통일했다. 회의에서는 지시와 복종의 자리에 설득과 대화가 들어섰다.

안 대표는 "조직원을 설득 못하는데, 고객과 시장을 유혹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려는 이들은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M로보와 같은 스타트업의 성장은 물론 원활한 현금 흐름도 있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객의 목소리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만큼 서비스에 대한 악평도 M로보의 '자양분'이 된다는 게 안 대표의 지론. 가장 무서운 건 '악플보다 무플'이라는 연예계 정언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

안 대표는 "사업 서비스 론칭 전까지 초주검이 될 만큼 힘들지만, M로보 서비스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의 목소리 때문에 다시 힘을 낸다"면서 "점점 많은 사람이 서비스 만족도를 보내고 있어 조직원의 젊은 열정을 사업 확장에 쏟아부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온실'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에 노출되는 기회를 가져볼 것도 조언했다. 자신의 잠재력은 온실 속 학교에서가 아닌, 찬바람이 뽕뽕 부는 시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기업을 만들어 보는 것은 잠재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내면을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웃었다.

[강영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